

남구, 관내 100세대에 ‘가정용 태양광’ 보급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가구당 설치비 80%까지 지원...500W급 설비 보급

전기요금 절감·탄소중립 실천 기대...18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3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관내 100세대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지원한다”면서 “오는 18일까지 참여 희망 세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정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500W 이내의 태양광 설비가 보급될 예정이다.

가정에 500W급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00만원 가량으로, 설치 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20%는 소유주가 부담하면 된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일부를 자

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재생에너지 이용을 직접 체험하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에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뒤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8일까지 남구청 6층 탄소중립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가정용 태양광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

며 “많은 주민이 관심을 두고 참여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정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어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사업 신청부터 설비 설치까지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행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성과를 바탕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박종수 기자

서구, “가을밤 명작 콘서트로 만나요”

10월까지 클래식·오페라 등 4개 장르 선보여

공연 해설·스토리텔링 더해 명작무대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서빛마루문화예술관에서 클래식, 오페라, 아가펠라와 팝페라, 재즈를 아우르는 명작시리즈 콘서트 ‘4 Colors of Arts’를 선보인다.

공연은 오는 5일부터 10월까지 토요일 오후 7시 4차례에 걸쳐 ‘네 가지 색, 하나의 감동’을 주제로 열린다. 서구는 가을 주말 저녁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적 색채를 선보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공연예술과 새로운 감동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첫 무대는 5일 클래식 공연 ‘축제와 열정’으로 막을 올린다. 루체뮤직 소사이어티가 바리톤 서상욱, 트럼

펫 연주자 이현주와 함께 무대에 올라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울림과 역동적인 선율을 선사한다. 로드리고의 ‘아란후에즈 협주곡’,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등 풍성한 곡으로 공연장을 뜨거운 음악의 에너지로 채운다.

19일에는 호남오페라단이 코믹 오페라 ‘버섯피자’를 선보인다. 사랑과 질투, 배신이 얽히며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로 흘러가는 가운데 아름다운 오페라 선율과 재치 있는 연출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펼친다.

10월17일에는 아가펠라 그룹 다리아와 팝페라 그룹 골드크로스가

함께하는 ‘THE VOICE’가 열린다.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빚어내는 섬세한 화음과 깊이 있는 성악 양상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진다. 친숙한 음악과 수준 높은 라이브 공연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전한다.

10월의 마지막 날, 31일은 ‘박수용 재즈오케스트라 with 김용필’로 장식한다. 웅장한 빅밴드 사운드 위에 김용필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더해져 재즈와 영화음악, 가요를 넘나드는 낭만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이날에는 ‘서빛 라운지’도 운영해 커피차로 무료 음료를 제공한다.

모든 공연은 약 70분간 진행되며 공연 해설과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클래식과 오페라 등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장르도 쉽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연은 7세 이상 주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으로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문화예술과(062-350-4564)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좋은 음악은 장르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일상에 특별한 순간을 선물한다”며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삶의 여유와 감동을 더할 수 있도록 서구만의 다채로운 문화무대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문화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서구, 명작시리즈 콘서트 ‘4 Colors of Arts’ 개최

/광주 서구청 제공

초록빛 장성에서 만나는 힐링 심포

여행은
장성으로

성장장성
Jangseong

축령산

남창계곡

장성호 수변길